

# '화엄' 밭에 '선종' 싹틔운 禪수련원

해오름의 고장 양양에는 두 개의 유서 깊은 폐사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356호에 살펴 본, 외설악 석교리의 개동지빠귀 낚이는 진전사터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설악산 국립공원 남쪽, 미천골에 자리한 자작나무 원시림 속 선림원(禪林院) 터이다. 진전사가 하대 신라불교 최초로 선종을 일으킨 선종 사찰이라면, 선림원은 처음에는 화엄종 사찰이었으나 이후 선종으로 전향, 당대 최고의 선 수련원으로 각광을 받았던 특이한 내역의 선종 사찰이다. 장뇌(長腦)씨 같은 선종의 모국을 옮겨심기에는 번잡한 저지 주변의 대형 사찰보다는 외설악 둔전리 곁에 '텃밭'을 일구거나, 미천 계곡 같이 숨이 험내 진하고, 산봉나무 우거진 곳에는 밀히 타 쪼파가 먼저 일궈놓은 화전(火田)을 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명악은 힘부로 세상에 내 놓기 보다 오래 묵힐수록 좋은 법, 사람의 손때를 타면 아무리 영악일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도라지의 효과도 못 낼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험

설악산 미천골 선림원 터



◇거북의 모습과 용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홍각 선사 비(碑)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 446호). 없어진 비신의 파편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홍각선사 부도(보물 제447호), 기단부만 남고 상륜부는 없어졌으며, 부도 중대석에 운룡문이 나타나는 최초의 양식이다.

▶불교사적 중요의를 지닌 선림원터. 보물 444호인 삼층석탑.

선림원 터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선 영동고속도로 속사리에서 이송북기 남관 쪽으로 꺾어들어 운두령을 넘으면 되고, 북쪽으로는 양양에서 오색약수 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눈화삼거리를 지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양 진전사터 방향으로 길을 잡았으니, 56번 국도를 따라 이 길을 택하도록 한다. 눈화리에 서 우회전, 구절양장으로 몸을 뒤튼 속 중한 산세에 인도되어 시오리쯤을 나아 가면, 개울가의 역새품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부터가 미천골 계곡이다. 기다림에 지친 역새품들은 인적이 하 그리워 허리가 꺾인 채로, 봉두난발로 지나가는 손님이면 아무나 붙잡고 어는 채를 한다.

### 순응법사 804년 창건

황정구역 상으로 양양군 서면 황이리 424번지, 하늘 아래 끝 번지라 불리는 바로 그 동네다. 지도상으로는 태백산맥 줄기의 등고선이 겨울나무의 나이테처럼 빼곡히 예리한, 양양군 인제군 홍천군 명주군이 실을 맞댄 곳이다. 선림원은 통일신라 시기인 804년에 창건 5대에 순응(順應)법사가 창건했다. 신라불교의 '반역자' 도의선사가 외설악 둔전리에 와서 진전사를 짓고 선종의 싹을 틔운 것이 821년으로 추정되니, 그보다 한발 앞서 화엄의 계보인 순

응스님이 해인사(802년)를 창건한 직후, 무슨 생각에선가 부지런한 발걸음 다시 이 곳으로 옮겨 남몰래 초막을 치고 화전을 부쳤던 것이다. 순응스님은 당나라 유학승 출신이면서 일찍이 가야 산에 들어 초막을 짓고 도반인 이정(貞) 洞스님과 함께 수도를 하다가 예장왕 왕비의 등창을 고쳐준 대가로 하사금을 받아 해인사를 창건한 바로 그 인물이다. 순응법사 이후에 선림원에 들어와 사찰을 크게 중수한 사람은 홍각(弘覺) 선사(9-886년)이다. 홍각선사는 구산선

## 일탐식 가람(1985년)...절터엔 석조유물 4점

문 중 봉림사문(鳳林寺門)으로 가자 산 파로 이어진 진전사 문중은 아니나, 이 무릎 들어 하대 신라불교가 크게 사상적 요동을 치면서 그 와중에 화엄종의 스님들을 대거 선종으로 이적시킨, 실질적인 선림원의 주인인 것이다. 선림원터 한 편에는 지금도 몸체는 없어 버리고, 탑신과 기단만 남은 홍각선사의 부도와 탑이 웅트림을 하고 있다. 선림원터가 폐사지이면서도 유물세를 타는 것은 선림원 그 자체가 이렇듯 화엄의 밭을 갈고, 선종의 싹을 가꾼 불교사적으로 독특한 향기를 내는 까닭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독심의 강원도가 새롭게 터득한 시절 방편의 덕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림원 터가 위치한 미천골 계곡 안 쪽에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1만2천여㎡에 이르는 자연휴양림이 있다. 산림청은 이 심산 오지에 숲 속의 집, 아영장, 산림문화휴양관, 통나무집 등을 지어 숲속에 찌든 도시의 영혼들이 이용료 4-5만원을 주고 찾아 들게 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덤으로 무너진 천년 고찰의 풍치를 가슴에 안고 가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또 양양군

청에서 여름에는 송이축제, 봄에는 남대천 연어 축제로 부지런히 소문을 내, 입맛 까다로운 외지 사람들이 향토음식의 날개짓을 따라 예기통풍, 마티리꽃 향기에 취해 미천골 계곡 깊숙이까지 흘러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천골 계곡은 한낱인데도 다 저널때 처럼 어둡다. 늦게 떠서 일찍 지는 보폭 좁은 겨울에는 그새 다녀갔는지 얼음으로 미끄러지는 가파른 돌길과 곧 인의 그늘이 흑백의 조화를 이룬다. 한 때 스님들이 온집했던 전성기에는 아침 저녁

뿔뿔은 물이 계곡 가득 흘러넘쳤다 하여 지금도 '미천(米川)골'이라 불리는 맑고 푸명한 물살이다. 인적이 없을 때는 만월봉(滿月峰 1281m)에 솟는 달을 보고 심심풀이 삼아 짓기도 했을 외판 집의 개는 일단 외지인이면 경계부터 하고 보는지 민망할 정도로 산중 적막을 깨운다. 이왕 이 골 안에 들어왔으면, 선림원 터에 가서 마음을 씻고 가든지, 휴양림에 들어가 몸을 씻고 가든지 돌중의 하나는 하고 가려는 압박이다. 휴양림 안내소에서 우리는 찰터로 가

뿔뿔은 물이 계곡 가득 흘러넘쳤다 하여 지금도 '미천(米川)골'이라 불리는 맑고 푸명한 물살이다. 인적이 없을 때는 만월봉(滿月峰 1281m)에 솟는 달을 보고 심심풀이 삼아 짓기도 했을 외판 집의 개는 일단 외지인이면 경계부터 하고 보는지 민망할 정도로 산중 적막을 깨운다. 이왕 이 골 안에 들어왔으면, 선림원 터에 가서 마음을 씻고 가든지, 휴양림에 들어가 몸을 씻고 가든지 돌중의 하나는 하고 가려는 압박이다. 휴양림 안내소에서 우리는 찰터로 가

긴 잠을 청한 것 같기도 하다. 일대를 다 둘러 보아도 고자 삼천여 평 남짓한데, 질 이름인 선림원에서 보듯 중생들의 기도처가 아닌 스님들의 수도처였기에 굳이 포대화상처럼 몸집만 키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선림원 터에는 형색은 망가졌으나 다 가설수목 산중 진풍의 향기를 풍기는 네 가지 보물이 푸리를 내리고 있다.

운생(輪生)하면 녹색색 일색도 다 떨 구고, 즐기도 사원 채 삼층석탑(보물 제 444호)과 석등(보물 제445호) 하나, 그리고 폭포소리같은 할(磬)을 던지던 홍각선사의 탑(보물 제446호)과 부도(보물 제447호) 만이 명악의 향내를 풍기며 소담하게 서 있다.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 가슴을 땀 흘리니, 한국 전쟁의 불길속에 망실된 선림원터 범종이 생각난다. 삼원사범종, 봉덕사 성덕대왕신종과 함께 신라시대 3대 범종으로 일컬어지던 선림원 범종은 1948년 해방공간의 어지러움 속에 발굴되고 돌보기가 마땅치 않아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졌으나 한국전쟁 때, 퇴각하던 국군에 의해 절과 함께 소실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순응법사에 의해 창건 당시의 절의 조성 내역과 연대가 적힌 이 기념비적 보물은 어찌하여 세상에 나왔다가 잘못된 시정인연을 만나 사라지고 말았는지 진한 그리움이 긴 여운을 남긴다.

### 석조물 복원 1965년에

선림원터는 1985년 동국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단에 의하면 금당터의 주초와 유물들이 고스란히 집단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절 역시 진전사터처럼 어느 시기에 산사태에 의해 일순간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유물이 모두 9세기 후반도 것인데, 그 이후 유물이 단 한점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된 후, 한번도 복원된 적이 없어 보인다.

동국대 발굴팀은 선림원이 지형 때문에 강당을 없앴, 전형적인 입삼각 가람임을 밝혔고, 금당터 서북 편에 석등을 일색은 조사당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 선림원터를 지키고 있는 네 점의 석조유물들은 무너져 있던 것을 1965년에 복원한 것이다. 동국대 조사단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 재복원된 삼층석탑은 언뜻 보기엔 진전사터 3층석탑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보다 어딘지 중후한 맛과 기품을 풍겨준다. 폐사지의 발굴은 아마도 선림원터처럼 그 존재의 비밀은 최대한 밝혀져, 남은 유적들은 정성을 다해 복원을 꾀하고, 원형은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이 복원의 순리일 것이다. 현대적으로 성급하고 어설픈게 되살리기 보다 있는 그대로 보살피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것이 모든 폐사지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 생각한다.

<시인·전각복재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강릉 한승사, 신복사터편

사람·자연·길이 만나는 곳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약속합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이어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 환경친화형·지능형 고속도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터널내 쾌적한 환경을 가꾸겠습니다

우수한 방음공법으로 소음이 적은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현재 노선은 환경적 측면은 물론 도로의 기능적, 경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최적의 노선입니다.

##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해 지 : 서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동 중점 - 경기도 남양주시 백내면 화평리
- 연 길 : 36.3km(중 - 37.8km, 양쪽 8차로)
- 사업기간 : 2001. 6 - 2006. 6
- 총사업비 : 2조 3,694억원 (연자 1,292,251억원, 국고 4,433억원)
- 주요시설 : 교량 50개소, 터널 5개소, 중점시설 IC 5개소 (명동, 백제, 송주, 의정부, 하동), 명점소 6개소(본점 : 고양, 남양주, 지선 : 명동, 백제, 송주, 하동)

노선의 선정 경위

- 기본설계 '89.9'~'91.3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북한산국립공원 중간(도봉산/우이령) 통과노선
- 국립공원 통과연장 7.6km(터널 4.1km)
- 신시설계 '96.12'~'98.12 백제'퇴계원권 신시설계
-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 외곽인 사계산으로 선형변경
- 국립공원 통과연장 4.6km(터널 4km)

사업의 특징 및 효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완성하는 최종 연결구간
-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고속도로
  - 국립공원구간 복역단을 터널로 통과
  - 교량등 구조물 설치로 훼손 최소화
- 수도권의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
  - 도심통과 교량의 외곽우회차선
  - 효율적 교통체계에 의한 통행비용 절감
- 서울 및 경기북부 지역개발 촉진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일산~퇴계원)

- '97.2.1'~'98.5.8 환경영향평가 착수, 주민 설명회, 공청회 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지답사 및 심의결과 회신
- '98.6'~'98.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기관 공람
- '98.12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제출
- '99.2'~'01.3.9개, 3개연 노선 검토
- '01.3'~'01.7 환경부, 노선 선반 계획도 및 환경단체와 협의(4회), 12개 노선중 현노선을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
- '01.7.11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환경 관리 대책

- 사전,사후환경조사 및 터널구간 설계 시행 사전조사
- 국립공원 통과구간 직행조사/지리수행 조사 완료, 농,림,수목 식재 대책조사 시행
- 공사기간중 및 완료후 조사
- 지표적분 식지 조사결과 선정 및 주거지역 보나티일/제기거스 열방조사/지표 - 지리수 수 정조사 시행
- 생태,대기,수질,소음,진동등 4개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
- 사각수행 활동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우회노선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4가지

산림훼손 면적이 1.6배가 더 큼니다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더 늘립니다

특수시설등 지장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도로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전화 : (02)3704-03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육인동 45-10(창조빌딩)

www.seoulbeltway.co.kr